

부산민족거 터

영호남과 민족의 대화합을 기원하는 2008년 정월대보름 대동한마당

넉넉한 새해 첫 보름달을 축하하며 한 해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달맞이 한마당' 행사가 이달 21일(목) 민주공원에서 열린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중구청,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회에서 후원하는 정월대보름 행사는 부산 시민들과 함께 달맞이 행사를 가짐으로써 민족 고유의 세시풍속을 되살리고 우리 전통문화인 마을 두레굿을 지금 시대에 맞도록 되살리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영호남 대화합과 양극화 심화로 갈등의 골이 커져가는 사회 대화합의 대동한마당을 기원하는 장승굿이 함께 열려 정월대보름 한마당이 더욱 풍성해질 예정이다. 이날 장승굿은 길놀이예 이어 장승세우기와 고사를 치른 다음 달 뜨는 시간까지 대동놀이와 공연이 계속된다. 1999년 개관 당시 세워졌던 민주공원의 '민족평화여장부'와 '민족통일대장부' 장승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지게 될 대장승은 멀리 진도군에서 군민들이 힘을 모아 부산 민주공원에 기증하였다. 또한 가훈 쓰기, 부적 소지, 연날리기, 복떡국 나누기 등의 부대행사도 펼쳐져 인근지역의 주민과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 풍요로운 세시풍속의 전통을 이어가는 민주공원 정월대보름 행사가 될 예정이다.



튼튼한 미래 전망과 시대 과제를 찾기 위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정기총회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올해 발전 방향과 전망을 찾아보기 위한 2008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정기총회가 이달 21일 (목) 오후 7시 민주공원 큰방(중극장)에서 열린다.

2007년도 사업(평가)보고 및 재정결산 보고, 2007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 이번 총회는 회의에 앞서 정월대보름 행사와 장승세우기 행사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부마민주항쟁 30주년과 민주공원 개관 10주년을 앞둔 해인만큼, 더욱 든든하고 내실 있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비전과 시대적 과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영원하여라! 민주여” 민주열사 박종철 21주기 추모제

1987년 억울한 죽음으로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민주열사 박종철 21주기 추모제가 지난달 13일(일) 오후 민주공원 작은방(소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제에는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박정기 씨를 비롯해, 해광동 동기생, 부산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노래패 ‘노래야 나오너라’의 노래 공연으로 시작된 21주기 추모제는 고인에 대한 묵념에 이어 경과보고와 추모사, 추모영상 상영, 추모시 낭송, 하연화(춤패 배김새 대표) 씨의 진혼무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또한 부산박종철기념사업회에서는 기념사업 경과보고를 통해 1996년 3월 ‘부산 6월항쟁기념 조형물과 기념비 건립을 위한 서화작품전’, 2002년 민주항쟁도 기증, 2003년 ‘박종철 인권상’ 제정, 2005년 모교인 해광고 교정의 추모비 건립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추모제는 대선 이후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첫 모임으로 부산 지역의 통일단체, 봉사단체, 풀뿌리단체 등의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 열사정신과 현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재) 5·18 기념재단

5·18사적지답사기 『그때 그 자리 그 사람들』

(재)5·18기념재단은 광주에 뿌리를 둔 작가 박혜강, 임동확, 은미희, 이승철과 사진가 이순규 씨가 순례객들을 위한 5·18사적지 안내서 『그때 그 자리 그 사람들』을 발간했다. 5·18민중항쟁의 숨결이 묻어나는 광주, 세월의 흐름만큼 그날의 기억은 희미해지지만 기억을 되살려 오늘 의 가치로 되살리려는 순례객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는다.

『그때 그 자리 그 사람들』은 4인의 작가가 5·18민중항쟁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작성한 답사기로 5·18민중항쟁의 역사의 현장에서 배워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독자로 하여금 되돌아보게 한다. 5·18기념재단은 비매품으로 한정 제작한 답사기를 전국공공도서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국어, 사회 5·18수업 교재 발간

(재)5·18기념재단은 '교과별 5·18수업안 개발연구용역'사업을 진행한 결과로 국어, 사회 수업 교재를 발간하였다. 국어교과 내용은 5·18 교육의 국어교과 적용 방안, 소설, 영화 수업을 통한 5·18민주화운동의 이해, 만화를 활용하여 다양하게 표현하는 5·18민중항쟁,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5·18에 대한 정보수집하기, 수행평가를 통한 5·18정신계승 글쓰기, 시 감상을 통한 5·18민주화운동의 이해, 한빛고등학교 연극동아리 동지와 함께 5·18청소년연극만들기, 5·18체험학습 준비 자료와 학습지 소개, 5·18민주화운동 관련 문학작품 모음집으로 구성되었다.

사회교과는 민주정치의 기본 제도와 시민참여 홍보물 만들기,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한 5·18체험학습, 4컷 만화로 표현해보는 시민의 자세, 활동 중심 수업에서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내면화하기, 시대별 노래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5·18, 빙고를 통한 5·18알기, 대중매체를 활용한 5·18민주화운동 수업, 영화 화려한 휴가 그리고 기본권, 5·18특별법과 법의 이념, 우리가 직접 느껴본 5·18현장 등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수업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였다.

5·18기념재단은 전국지역 학교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며 교재 구입은 5·18기념재단 학술교육팀 062-456-05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무처 인사 이동 단행

(재)5·18기념재단은 지난달 재단 사무처 직원 팀 개편에 따라 인사 이동을 실시했다. 팀 인사 이동은 지난해 총무팀, 국제협력팀, 교육사업팀, 학술자료팀에서 올해는 총무팀, 교류지원팀, 학술교육팀으로 팀이 재구성 되었다. 재단은 이번 인사 이동을 통해 기존의 업무 성격에 대한 통합과 팀 운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무팀장 이기봉

팀원 김미옥

교류지원팀장 김찬호

팀원 이은진, 김상선, 박채웅, 정 린

학술교육팀장 조진태

팀원 김점옥, 송소연, 신수연, 고재대, 김정택, 주정립

2월 월사 추모일

이름	추모일	장소
김순복, 손구룡	94. 2. 1	경남 진주시 나동 공동묘지
김관석		경기 마석 모란공원
남현진	91. 2. 3	경기 마석 모란공원
함석현	89. 2. 4	경기 연천군 전국읍 감악산 묘소
신연숙	96. 2. 5	
조문익	06. 2. 7	
제정구		경남 고성
정종태	05. 2.10	
김남주	94. 2.13	광주망월묘역
한상근	97. 2.13	경기 마석 모란공원
박동진	04. 2.13	경기 마석 모란공원
김진균	04. 2.14	경기 마석 모란공원
박일수	04. 2.14	경남 양산 솔밭산
강희수	92. 2.15	경기 마석 모란공원
민병일	97. 2.15	경기 마석 모란공원
정상률	89. 2.18	서울 용미리 시립묘지
배주영	90. 2.19	경북 안동시 안기동천주교회 묘지
김상옥	94. 2.19	경기 마석 모란공원
김용권	87. 2.20	서울 용미리 시립묘지
박선영	87. 2.20	광주망월묘역
송종호	91. 2.20	
채희돈	93. 2.20	
권오복	03. 2.22	
이옥순	01. 2.23	경기 마석 모란공원
최명아	98. 2.24	경기 마석 모란공원
지용진	97. 2.25	
최대림	98. 2.25	경남 양산 솔밭산
윤재동	96. 2.27	
안종필	80. 2.29	
김명한	00. 2.29	
2·28 대구민주운동기념식		대구 두류공원 기념탑

*추모제 관련 문의 : 기념사업팀 02-3709-7553